■ 민주당 광주 구청장 경선 판도는

서·남구, 朴시장 불출마·배심원제로 안갯속

참여경선 동구 2파전·광산 前 청장-의원 대리전

북구는 경선방식 결정 안돼 구도 파악 어려워

민주당 광주지역 구청장 후보경선 방법이 대부분 결정됐지만 경선 판도는 아직도 안개 속이다.

특히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북구청장 후보 경선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후보자 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현재 광주 동구청장, 서구청장,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시민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으로, 남구청장 후보 경선은 시민배심원제로 실시될 예정이며 북구청장 후보 경선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동구청장=3선을 노리는 유태명 현 청장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조영복 예비후보가 힘겨운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일 벌어진 민주당 광주시당 개최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임홍채 예비후보는 경선방식에 불만을 품고 22일 불참을 선언했다.

◇서구청장=전주언 현 구청장과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이 맞붙은 상태. 지방정가에서는 이 경선전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영택(서구갑), 김영진(서구을) 의원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옥 전 시의원의 경우 2년 전 조영택 의원의 총선을 진두지휘한 인물. 반면, 김영진 의원과 전주언 청장은 구민주계로 인연을 맺고 있다. 더욱이 서구인구가 최근 30만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2년 후 총선에서 서구가 단일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두 의원 간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다.

애초 전주언 청장의 우위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경선구도가 다소 불투명해졌다. 전 청장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조직의 도움을 받아 당선이 됐으며 이후에도 박 시장 조직이 전 청장 조직의 근간이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박 시장 불출마로 전 청장의 조직이 흔들렸을 것이란 게 일반적 분석이다. 더욱이 김선옥 전 시의원은 여성후보로서 1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전 청장 측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설 수 있고 4년 동안 꾸준히 조직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도 15%의 가산점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선거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종식 전 서구청장은 이날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남구청장=황일봉 현 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나머지 후보끼리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치러진다. 모두 9명의 후보가 시민배심원제 후보 등록을 했지만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4명의 후보를 걸렀다. 앞으로 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2~3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당은 황 청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연대에 의한 무공천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해 어느 지역보다 경선판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구청장=경선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구도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공심위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인 '시민공천배심원제 50%+당원전수조사 50%'를 준용하자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렸으나 일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공심위 안이 거부될 경우 다른 구청장 후보 경선과 같은 국민참여경선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가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일부 도입되는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이형석 후보가 다소 유리한 가운데 송광운 현 청장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남평오 예비후보가 이를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될 경우에는 송 청장이 다소 유리한 가운데 이형석 후보가 맹추격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청장=광산갑 지역에서 1차 여론조사 압축으로 이정남·이정일 예비후보가 남고, 광산을 지역에선 김종오·민형배·유재신 후보가 경선전을 뛰고 있다. 이 경선전은 광산갑의 김동철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이정일 후보를 밀고, 전 전 처장이 유재신 후보를 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시장 경선전에 뛰어든 광산을의 이용섭 국회의원도 유 후보를 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 의원 측은 엄정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당 지역별 경선방법 〈2010. 3. 22〉

기초단체명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선거구별) 광역의원	지방의회 의원(선거구별) 기초의원
목포·광양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시민여론조사50%)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시민여론조사50%)	
여수(갑·을)	시민공천배심원제 50%+당원전수조사 50%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투표) (당원50%+시민50%)	
		당원경선 (당원선거인단투표)	당원경선 (전당원여론조사)
순천	미정	당원경선 (당원선거인단투표) (당원50%이상+대의원50%이하)	
나주·화순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당원경선 (전당원여론조사)	
담양·곡성·구례 함평·해남·진도 완도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고흥·보성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당원경선 (전당원여론조사)	
장흥	단수신청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강진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영암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당원경선 (전당원여론조사)	
무안	시민공천배심원공천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신안	미정	국민참여경선 (전당원여론조사50%+군민여론조사50%)	
영광·장성	단수신청	당원경선 (전당원여론조사)	

여수 시민배심원제 도입

목포·광양시 등 15곳 국민참여경선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방식 결정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은 목포시 등 15개 시군에서 전당원 여론조사 50%와 시·군민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서 5차 공심위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영광과 장성, 장흥군 등 3곳은 단일후보지역으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무안군은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적용된다.

또 여수와 순천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도입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여수의 경우 22일 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도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와 순천시의 경우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현직 시장과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등이 반발해 왔다.

그동안 공천방식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던 신안군의 경우 현직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달라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직 군수 영입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의원 경선의 경우 목포, 광양, 담양,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완도, 무안, 신안, 함평은 '전당원 여론조사 50%+시군민 여론조사 50%'의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나주, 화순, 고흥, 보성, 영암, 영광, 장성은 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당원경선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수시의 경우 갑지역은 당원 50%+시민 50%가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 형식의 국민참여경선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을지역에서는 광역의원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기초의원 후보는 전당원 여론조사방식의 경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경선방식은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5만달러의 진실은

'한명숙 재판' 총리 공관서 첫 현장검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와 검찰이 무대를 법정에서 총리 공관으로 옮겨 '5만달러의 진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총리 공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먼저 도착한 검찰은 공관 측이 복원한 오찬장이 당시의 모습과 같은지를 점검했고 이후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아 오랜만에 온다"고 소회를 밝히며 공관 건물에 들어섰다.

건물 내부에서 마주친 검찰과 변호인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당시 경호원 윤모 씨의 조서를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변호인은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바뀐 사람이 많은데 현장검증을 도와줄 사람을 몇 시간이나 조사한 거냐"며 따졌고, 검찰은 "처음 조사했을 때와 법정 증언이 너무 달라 위증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경위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변호인이 정원에서 '4인 회동'이 열렸던 오찬장 내부가 창문을 통해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자 검찰은 굳이 정원까지 나와 오찬장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오찬을 마치고 참석자가 나가는 사이에 5만달러 전달이 이뤄졌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재연할 때에는 검찰이 마련한 미화 5만달러가 동원됐다.

곽 전 사장의 설명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대역을 이용해 돈 봉투를 꺼내 의자에 놓은 것과 이를 집어 오찬장에 있는 서랍장에 넣고 현관까지 나가는 것을 재연하며 시간을 측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장면에서 "나는 저 서랍을 쓴 적도 없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문이 열린 상태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했는데 검찰이 재연할 때는 '드르륵' 소리가 났고 변호인이 할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회사매각공고
◆위 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단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일이뉴(주)
일이뉴테크(신설) 공장
- 연매출액 100억
◆특장점
- 하남산단 위치하여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시고 자동화 시스템설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8-5008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다니드론 신용대출
◆ 아파트론 -월담보 아파트대출
소액필요한데 근처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 010-4041-1121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목포시 – 나주I.C – 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김접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590호 •
☎ 011-620-3583 ☎ 062-381-8000
(상무지구 5.18민주화운동거리)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선거정보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주정원애드 062)362-2285